



## 기적의 사과

| 이시카와 다쿠지 | 이영미 옮김 |

오로지 농약을 치지 않은 사과를 재배하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어려움을 지나온 기무라 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해결책을 발견해냅니다. 기적은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에, 포기할 줄 모르는 그의 마음 속에 이미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뜻을 향한 그의 에너지 사용을 느껴보십시오(편집자 주).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 있어 봐야 가족에게 폐만 끼칠 뿐이다. 자기만 사라지면 가족 모두가 지금보다는 행복해질 게 틀림없다.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죽으려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얼마나 산에 올랐을까. 발밑에 그림자가 지는 걸 알아채고 뒤를 돌

아보니 하늘에 커다란 달이 떠올라 있었다.

둥그런 보름달이었다. 그런 달을 바라보는 것도 오랜만이였다.

눈 아래로 히로사키의 야경이 펼쳐졌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달이나 거리의 조명뿐 아니라 여름의 밤하늘, 어두운 산길, 발밑에서 우는 벌레 소리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세상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다.

세상을 떠나려 하는 지금에 와서야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도 알갭기 그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고쳐먹을 기분도 아니었다.

무거운 짐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만큼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지금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밧줄을 움켜쥐고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듯 조심조심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서 잔가지 하나가 부러지자, 그 소리에 놀란 새가 푸드덕 날아올랐다. 그 새가 발아래 세상을 내려다봤다면 밝은 보름달 아래 홀로 산길을 올라가는 기무라 씨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스름한 나무숲 사이로 사라지는 것도…….

“히로사키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지. 히로사키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 7월 31일이었으니까 시내에는 때마침 네부터 축제(도호쿠 지방에서 행하는 칠석날 행사의 하나. 현재는 8월 1일부터 7일에 걸쳐 행해지는데, 대나무 뼈대에 종이를 발라 커다란 인형이나 동물 모양을 만들어 안에 불을 켜 뒤 수레에 싣고 밤거리를 누비고 다님) 전야제 날이었지. 죽을 생각이었으니까 물론 밝은 기분은 아니었지. 하지만 죽으려고 결심하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모두 사라지

더군. 생활의 고단함이니 세상의 비난이니 모두 다. 가족을 고생시킨 일도, 저 사람이 한 말도 이 사람이 한 일도 다.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일들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 아니, 물론 한편으론 우울한 기분도 가득했지. 말로는 어찌니 저찌니 해도 결국엔 죽어서 도망치려 한 거잖아. 죽지 않고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말이야. 비겁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제멋대로 사는 남자였을 거야.

그러나 그때 기분을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새처럼 가벼워졌지. 미련이 남을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 며칠씩 물 구경도 못 하다가 오랜만에 목욕한 것 같은 상쾌한 기분으로 이와키 산에 올라갔던 거지. 꿈이 나타날까 무섭다는 생각도 없었어. 그 왜, 옛날에는 산에도 열매가 꽤 많았잖아. 지금처럼 이따금 꿈이 나오는 일은 없었지만 말이야. 다만 간혹 새가 놀라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지.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지더군. 새라는 걸 아는데도 그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지. 그건 정말 무섭더라고. 그런데도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 도중에 계곡이 나왔는데 그것도 넘어갔고. 아마 두 시간쯤 올라갔지 싶어.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적당한 나무가 보였어. 좋아, 저걸로 하자고 결정하고선 들고 온 밧줄을 나뭇가지에 던졌지.”

힘이 너무 썩는지 밧줄이 손가락 사이로 휙 빠져나가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런 상황에서도 실수하다니, 얼마나 변변치 못한 남자인가 생각하며 밧줄을 집으려 산비탈 길을 내려간 기무라 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띄었다.

달빛 아래에 사과나무가 서 있었다.

## 숲 속 나무에겐 농약이 필요없다

마치 마법의 나무처럼 그 사과나무는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렇듯 깊은 산속에 어떻게 사과나무가 있을까.

꿈을 꾸거나 환영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봐도 그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파리 하나하나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까지 또렷하게 보였다. 녀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과나무였다. 가지가 쪽쪽 뻗어 있었고, 그 가지마다 잎이 무성했다. 조건 반사처럼 누군가 농약을 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것이 사과나무인 한, 농약을 안 치고는 저렇듯 건강하게 잎이 무성할 리 없다…….

거기까지 생각한 기무라 씨는 정수리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나무에는 농약 한 방울 닿았을 리가 없었다.

잘못 던진 밧줄을 줍는 것도 잊은 채 정신없이 달려갔다.

물론 그 깊은 산골짜기에 사과나무가 있을 리 없었다.

나무를 향해 달려가면서 기무라 씨는 그것이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런데도 심장의 고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도토리나무였다.

전쟁 중에 육군이 군마를 사육하기 위해 개간한 산중에 도토리가 떨어져 자라난 것 같았다. 말로만 듣던 군마용 풀베기 터였다. 그런데 산중의 평평한 자리에 도토리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모습이 사과 받처럼 보인 것이다.

사과든 도토리든 그때의 기무라 씨에게는 마찬가지였다.

농약을 안 썼는데도 저 나무엔 어찌면 저렇게 잎이 많이 달렸을까.

넋을 잃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 속을 뒤져 성냥불을 켰다. 잎을 잡아당겨 성냥불에 비취 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해충은 없었다. 벌레 먹거나 병으로 색이 변한 잎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아주 건강했다.

6년간 끝없이 찾아 헤매며 찾던 답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숲 속 나무는 농약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왜 그런 사실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자연의 식물이 농약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어찌서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산에 벌레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까부터 벌레 소리는 시끄러울 정도로 울려 퍼졌다. 주위는 작은 생물들의 기척으로 가득했다. 밭의 벌레만 해도, 큰 민달팽이가 그랬듯이 대부분 산이나 숲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나 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벌레나 병이 도토리나무를 완전히 먹어 치우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기무라 씨는 그 장소에 밭을 들여놓는 순간, 그 이유를 깨달았다.

산기슭에 있는 사과나무나 눈앞의 도토리나무나 똑같은 이와키 산의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태양 빛을 받는다. 조건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땅에는 잡초가 제멋대로 자라 밭이 빠질 정도로 깊었다. 흙이 전혀 달랐던 것이다.

기무라 씨는 풋내를 풍기는 풀 냄새에 취해 정신없이 밭밑의 땅을 파헤쳤다. 흙은 보드랍게 흐물러져서 맨손으로도 파헤칠 수 있었다. 풀을 잡아 뽑자 흙이 붙은 뿌리가 끝까지 뽑혀 나왔다. 그렇게 부드러운 흙을 만져 보는 건 처음이었다.

코를 찡하게 자극하는 산의 흙냄새가 풍겼다.

바로 이거다, 이런 흙을 만들면 된다.

직관이라기보다 누군가가 자기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느낌이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흙을 입속에 넣고 있었다. 코를 찡하게 올리는 독특한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다. 자극적이었지만,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좋은 냄새였다.

자신은 지금껏 사과나무의 보이는 부분, 즉 지상에만 신경을 썼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과나무의 지하는 안중에도 없었다. 퇴비를 주고, 양분을 뺏기지 않게 잡초만 깎아 주었다. 잎의 상태만 신경 썼을 뿐, 사과 뿌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거진 풀숲에서도 도토리나무는 쑥쑥 잘 자라고 있었다. 아니, 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도토리가 건강한 게 아닐까.

이 부드러운 흙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의 합작품이다. 낙엽과 마른풀이 몇 년씩 쌓이고, 그것을 벌레나 미생물이 분해해 흙이 만들어진 것이다. 거기에 떨어진 도토리나 풀씨가 뿌리를 뻗으면서 흙의 깊은 부분까지 일구어 나간다. 흙 속에도, 풀과 나무 표면에도 무수한 곰팡이와 균이 존재할 것이다. 그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을 것이다.

자연 속에서 고립해 살아가는 생명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른 생명과 관계를 맺고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갔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사과를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자기는 이제껏 농약 대신 벌레나 병을 없애 줄 물질만 찾아 헤맸다. 퇴비를 뿌리고 잡초를 깎으며, 사과나무를 주변 자연으로부터 격리시

키려 했다. 사과나무의 생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농약을 쓰지 않았어도 농약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병이나 벌레 때문에 사과나무가 약해졌다고만 생각했다. 그것만 없다면 사과나무가 건강을 되찾을 거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벌레나 병은 오히려 결과였다.

사과나무가 약해졌기 때문에 벌레와 병이 생긴 것이었다.


도토리나무 역시 해충이나 병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 터였다. 그런데도 그토록 건강한 것은 식물은 본래부터 농약 같은 게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자연의 본모습이다. 그런 강력한 자연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벌레와 병으로 고통 받았던 것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자연을 되찾아 주는 일이었다.

파헤치고 또 파헤쳐도 산의 흙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어렵풋하게 따뜻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이 그곳에 살아 숨 쉬는 느낌이 전해졌다.

밭에 그런 흙을 깔아 주면 사과나무는 반드시 뿌리를 뻗을 것이다. 그리고 도토리나무처럼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침내 답을 찾아낸 것이다. 그 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듯 맨손으로 땅을 파고 그 냄새를 맡고 입속에 넣어 맛을 봤다. 풀을 뽑아 떨어는 손끝으로 보드라운 뿌리의 감촉을 확인했다.

온 정신이 팔려 흙투성이가 되어 가는 기무라 씨의 모습을 하늘 한 가운데서 보름달이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끝) 

- 이 글은 '기적의 사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 기무라 아키노리(木村秋則) | 1949년 아오모리 현 이와키마치에서 대대로 사과 재배를 해온 농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히로사키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히타치 계열의 제조회사에 취직하지만 1년 반 만에 귀향하여 1978년부터 사과 재배를 시작한다. 생명농법의 창시자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을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법'을 사과 재배에 실천한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도전이었다. 도전의 대가는 혹독했다. 밤낮으로 들끓는 해충과 씨름하고, 누렇게 말라 죽어 가는 사과나무를 돌보아야 했다. 지난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나무만 보고 흠은 보지 못했다'는 섬광 같은 깨달음을 얻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완성한다. 10여 년간 사과나무는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지 않는 야생의 힘을 스스로 회복하여, 현대 문명의 발달 이래 존재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인류가 먹어 보지 못한 야생의 사과를 선물했다. 그의 기적의 사과는 2006년 12월 일본 NHK의 〈프로페셔널-프로의 방식〉에 소개되었고, '단 한 번만이라도 기무라 씨의 사과를 먹어 보고 싶어요' '기무라 씨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와 같은 사연이 담긴 7백여 통의 편지가 방송국으로 폭주했다. 온라인에서 3분 만에 품절되는 사과, 이를 재료로 만든 수프를 먹으려면 1년간 기다려야 하는 '기적의 사과'를 키우는 그는, 여전히 소박한 시골 생활을 유지하며 자신의 자연농법을 알리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저자 | 이시카와 다쿠지(石川拓治) | 1961년 이바라키 현 미토 시에서 출생했다.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편집 프로덕션 근무를 거쳐 1988년 프리랜서 작가로 독립했다.

추천도서 마음에 댄은 책 Good Book

## 기적의 사과

이시카와 다쿠지 저 | 이영미 역 | 김영사 | 11,000원

무농약 사과 재배를 향한 꿈의 도전기 『기적의 사과』. 농약을 안 쓰고 사과 농사를 성공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낸 한 농부가 있다. 2006년 12월 7일 NHK에서 다큐프로그램으로 방영되면서 일본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킨 사과 농가 기무라 아키노리씨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인간의 나약함을 이겨낸 한 남자와 그를 믿고 지켜봐준 가족들의 이야기는 뭐든 쉽게 포기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삶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전한다.

